

사찰서 한국 배우는 지구촌 청춘들

평창 월정사·서울 진관사 등에서 외국인 여름방학 캠프 열려

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앞 다퉈서 지역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단국대는 7월 17~18일 1박 2일간 평창 월정사에서 국제여름학교(DKU ISS)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단국대 국제여름학교에는 16개국 120여 외국인 대학생과 아세안 우수이공계 학생 등 총 14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30여 명이 월정사 템플스테이를 소화했다. 외국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이들은 108배, 타종제현, 전나무숲길 명상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템플 스테이 체험에 참가한 미국인 앤서니 가르시아(샌버나디노 캘리포니아

주립대) 씨는 "한국에 오면 템플 스테이를 꼭 해보고 싶었다. 단국 국제여름학교를 통해 여러 친구들과 절에 머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 국제하게대학은 7월 17일 서울 진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들은 진관사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행복 나누기' 강연을 듣고 참선과 다도예법을 배웠다. 또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절에 대한 역사와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고려대 국제하게대학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도 세계 30여개국 220개 대학



월정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들이 연꽃을 만들어 즐겁게 웃고 있다.

에서 학생 13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어와 경영, 정치, 사회, 인문, 과학 등 8개 분야를 공부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초복 맞이 어르신 사찰음식 공양 '눈길'

광주 무각사 7월 17일 700명 초청 행사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7월 17일 서구 관내 어르신 700여 명을 초청해 사찰음식을 대접했다.

초복을 맞아 진행된 이번 사찰음식 공양은 사찰만이 갖는 청결하고 담백한 음식이 선묘여 참여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준비한 무각사 측은 "무더운 여름날을 사찰음식을 통해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시길 기원한다. 향후 이



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사,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전달

선운사가 위탁운영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은 지역내 난치병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전달했다.

대원 스님은 7월 16일 고창군 드림스타스 센터 추천으로 치료비와 수술비 지원이 필요한 난치병 어린이 환우 2명에게 각 250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5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고창 선운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제15회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금된 금액이다.

3000배 철야정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 15회째 진행



했다. 대원스님은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인 사람들의 기원이 힘이 되어 아동이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며 "이번 지원금이 환아의 아픔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실상사, 무더위 이기는 특별법회 봉행

전주 실상사(회주 진성)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특별한 법회를 봉행했다. 실상사는 삼복더위가 한창인 7월 18일 '무더위를 이기는 실상사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실상사 회주 진성 스님과 대구 해인정사 진승 스님을 비롯한 실상사 신도, 지역 주민 1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는 삼귀의례, 독경, 설법에 이어 실상사 밴드의 공연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실상사 자원봉사 단체인 나누우리회원

으로 구성된 실상사 밴드는 난타공연과 색소폰연주로 갈채를 받았다. 이어 신도 노래자랑에서는 유명속 불자가 '숨어우는 바람소리'로 1등을 차지했다. 6개월전 결성된 실상사 밴드는 양로원등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위문공연과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진성 스님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자는 의미로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호응이 좋아 특별법회를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금, 전북은 연꽃으로 환희심 물결"

전주 연꽃문화제 · 하소 백련축제 성료

연꽃의 계절을 맞아 전북 도내 곳곳에서 연꽃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성우, 급산사 주지)은 7월 18~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2015 전주 연꽃문화제'를 개최했다.

전주 연꽃문화제는 4만㎡에 이르는 덕진공원 연꽃을 가득 매운 흥련의 물결이 마치 연화장세계와 같이 장관을 이뤘다. 이 시간 연꽃문화제를 찾은 인원은 3만여 명에 달했다.

문화제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불교 OX 퀴즈, 즉석노래자랑, 난타공연, 전북지역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 공원에서는 투호, 굴렁쇠 돌리기 등 민속놀이 한마당과 연꽃만들기, 다도체험, 사경, 풍선아트, 염주만들기, 페이스페인팅의 체험마당도 열렸다. 이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는 전문사진가들의 연꽃 촬영대회도 열려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주 금성암과 자연음식문화원은 행사

장에서 연꽃과 관련된 30여종의 연음식 전시회와 연음식 체험프로그램을 열고 사찰음식의 우수성과 연음식을 시민들에게 소개했다.

이에 앞서 행사 첫날에는 전북영상작법 보존회(전북 무형문화재 18호) 스님들이 전주시민들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도 7월 17~19일까지 3일간 '하소 백련축제'를 개최했다. 백련축제는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닮아 하소로 불리는 청운사 백련지에서 열리며 올해로 14번째 맞이하는 지역 대표 연꽃축제다.

'메르스로부터 힐링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해 문화공연을 펼쳤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평화장 도원 스님이 직접 제작한 극락도 병화 점안식과 전시회도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연꽃문화제에서 펼쳐진 전통문화 공연의 한 장면.

"아이들에게 장보고의 꿈을 심는다"

완도 신홍사 장보고아카데미, 7월 20~24일 중산동지역 답사

완도 어린이들의 장보고 역사 유적을 답사가 진행돼 화제다.

완도 신홍사 장보고아카데미(대표 법일, 완도 신홍사 주지)는 7월 20~24일까지 중국 산둥지역 위해·봉래·연태 등에서 '장보고와 후예들이 만나는 장보고 유적답사'를 진행했다.

신홍사 총무 법공 스님과 완도 아이들 30명, 지도교사 8명 등 총 39명이 참여한 이번 답사는 통일신라 말에 활동한 장보고 대사가 중국에 세운 적산법화원 등에서 장보고 업적을 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출발 전 19일 완도 신홍사에서 사찰체험과 불교예절을 배우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일 위해 선교정풍경구 및 해상공원 탐방, 21일 장보고가 무령군 소장으로 통치했던 봉래지역 탐방, 22일 적산법화원 방문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장보고 퀴즈대회와 전래놀이, 그

람그리기 대회도 함께 병행됐으며 적산법화원에서는 완도 신홍사와 적산법화원 측의 자매결연 행사도 마련됐다.

법공 스님은 이어 "특히 참가 아이들이 장보고대사의 고향이 완도라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지속적인 행사 개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적산법화원 측도 "향후 한국 방문을 통해 3개국의 우호를 더욱 증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참가한 심명보(완도초등 6학년) 학생은 "너무 재미있고 신났다.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신홍사는 지난 2009년 장보고 범종 제작에 맞춰 한중일 삼국의 장보고 유적 사찰들이 참여한 기념 타종식을 개최했다. 이 방향 행사의 화답으로 이번 답사가 진행된 것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보고 중국역사여행에 참가한 아이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익산 정각사, 진오 스님 초청 법회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는 7월16일 '꿈을 이루는 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 초청, '33인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진오 스님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울트라마라톤 등으로 달리는 스님으로도 유명하다.

이날 진오 스님은 "종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 의지하는 곳"이라며 "불교는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어 어려

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정각사 제33인 선지식 초청법회는 2015년 2월부터 시작해 매달 음력 초삼일 진행된다.

그동안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과 前 중앙승가대학 대학원장 종석 스님, 자성과쇄신결사본부장 도법 스님 등이 초청법사로 나선바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동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詩人 김하리 합장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 | | | | |
|----------------------|------------------------|------------------------|----------------------|
| CD01-제1, 서문(39:25) | 제8, 오색제자수기(21:11) | 제15, 종지출품(21:13) | 제22, 속루품(04:36) |
| CD02-제2, 방편품(46:51) | CD06-제9, 수학무학인기(11:22) | 제16, 여래수랑품(21:15) | 제23, 악왕보살본사(23:10) |
| CD03-제3, 비유품(54:48) | 제10, 법사품(18:39) | 제17, 분별공덕품(23:31) | 제24, 무음보살품(16:12) |
| CD04-제4, 신해품(30:24) | 제11, 건보품(22:19) | 제18, 수희공덕품(13:23) |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
| 제5, 약초유품(16:08) | 제12, 제바달다품(15:54) | CD09-제19, 반사공덕품(24:17) | 제26, 다라니품(10:07) |
| 제6, 수기품(17:13) | CD07-제13, 권지품(10:07) |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 제27, 묘장엄왕본사(14:46) |
| CD05-제7, 화성유품(51:41) | 제14, 안락행품(27:27) | 제21, 여래신력품(08:59) |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연불샵